

현대중공업(주), 하이맵시스템 최초 국산화 한전에 납품

현대중공업(대표 : 조충휘)이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전력보호감시제어시스템(HIMAP)」을 고압 배전반에 탑재하여 출하함으로써 하이테크 전력기술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된 고압 배전반은 한국전력 태안화력 5, 6호기에 설치될 2백여대다.

「HIMAP(Hyundai Intelligent Metering & Protection Sys.)」은 대형 발전소나 공장, 빌딩 등의 수변전제어실에서 현장의 각종 기기 계측과 전력상태 및 사고 등을 감시하고 전력 모선의 제어기능을 보호,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무인 감시제어 및 자동화 운전의 핵심이 되는 부품이다.

현대중공업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 시스템

을 '97년 8월, 11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자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연간 1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하이테크 전력 기술의 자립화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이 제품은 발전소 및 변전소, 산업 플랜트, 신공항, 고속전철, 연구단지 등 각종 시설과 종합병원, 백화점, 호텔 등 대형 건물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앞으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출하한 1백여대의 고압 배전반을 올해 말까지, 제작 중인 추가물량 1백여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시운전을 끝내고 한국전력에 인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주), 북한에 디젤발전설비 공급

현대중공업(대표 : 조충휘)이 최근,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에서 추진중인 함경남도 금호지구 북한 원자력발전소용 디젤발전설비를 한국전력을 통하여 공급,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디젤발전설비는 750kW급 3기로, KEDO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로써 KEDO 원전사업을 본격화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이와 함께 남북 경협사업 추진으로

북한내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 공단 설립 등이 활발해지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10만kW~20만kW급 육상디젤발전설비는 물론, 5만kW급 및 10만kW급의 선상발전소(Barge-mounted Power Plant)까지 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특히 발전설비를 바지선에 실어 가동하는 선상발전소는 북한 해안지역에 위치한 공단 등 공사현장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데 4~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육상디젤발전소는 15개월, 선상발전소는 12개월의 짧은 공기로 건설할 수 있고, 공사비용 또한 적게 드는 이점이 있어 북한의 특정 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현대중공업은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9년 인도에 세계 최대의

20만kW급 디젤발전소를 건설한 것을 비롯,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인도, 모리셔스, 대만 등 해외에 10여기의 디젤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는 세계 최대 디젤엔진 메이커다.

국내에도 북제주 내린발전소, 롯데잠실열병합발전소, 흑산도발전소 등 6기의 디젤발전소를 건설하여 현재 상업운전 중에 있다.

LG산전(주), 영광 원자력발전소에 주제어반 공급

LG산전(대표 : 손기락)은 최근 2002년 6월에 상업운전 예정인 영광 원자력발전소 6호기에 주제어반 및 관련 계측기기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LG산전이 이번에 공급한 원자력발전소용 주제어반은 LG산전 독자 기술로 개발하였으며, 지난해 말 미국 내진 전문기관인 NTS(National Technical System)사의 내진시험에 합격, 성능을 인정받아 영광 원자력발전소 5호기에도 공급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소용 주제어반은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스템으로서 평상시 시스템 운전자가 발전소의 운전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평상시뿐만 아니라 지진 등의 비상

시에 원자력발전소의 중요 계통, 설비, 원자로 및 핵 장전 등에 대한 감시 제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된 제어시스템이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용 주제어반은 프랑스 알스톰사,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등 외국업체 의존도가 높았으나 LG산전이 지난 '97년에 올진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에 자체 기술로 제작한 시스템을 국내업체중 처음으로 납품하기 시작, 이번에 영광 원자력발전소에도 자체 기술로 제작한 시스템을 납품함으로써 외국 기술 의존도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자력용 배전반 제작시 관련 기술 적용이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

LG산전(주), 6시그마 기법 적용한 그라인더 개발

LG산전(대표 : 손기락)은 최근 지난 1년간 2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기존제품보다 고기능을 지닌 그라인더(Grinder) 신제품(모델명 : G504)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시장에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LG산전이 이번에 출시한 그라인더는 무부하 회

전수 12,000rpm 이상으로 기존제품의 1,000rpm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연삭성을 대폭 향상시킨 제품이다.

또한 6시그마(Sigma) 기법을 적용해 공정을 최적화하고, 정류자 구조와 형상을 개선해 카본브러시 및 모터의 수명을 향상(2배)시켰으며 분진에

의한 로터(Rotor)의 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제품 수명을 개선했다.

LG산전은 이번 신제품이 국내·외 그라인더 시장에서 연 15만대 이상의 판매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진전기공업(주), 일진전선 흡수 통합

일진그룹(회장 : 허진규)은 최근 사업군이 유사한 업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와 관련, 일부 임원급 인사발령을 냈다.

일진그룹은 지난 6월 30일 일진전기공업(주)과 일진전선(주)의 합병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일진전기공업에 일진전선을 흡수·통합하여 전선사업 본부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진전기공업은 앞으로 기존 전기사업본부와 주조사업본부에 전선사업본부를 포함, 3

개 사업본부체제로 운영되며 대표이사는 현 정은현 사장이 유임됐다.

그룹 임원급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황기연 사장 (주)일진 대표이사=(주)일진 대표이사 겸 일진경금속(주) 대표이사 ▲ 홍순갑 전무 일진경금속(주) 대표이사 겸 일진전기공업(주) 전기사업본부장=일진전기공업(주) 전기/전선사업본부장 ▲ 이교진 전무 일진전선(주) 대표이사=(주)일진총괄담당

(주)비츠로기업, CI(기업이미지 통합) 선포식 가져

비츠로(VITZRO)기업이 21세기 초우량 기업으로 부상하기 위한 CI(기업이미지통합)를 선포했다.

비츠로기업은 6월 30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회사 및 협력사 임직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첨단기업과 초우량기업을 표방하는 CI 선포식을 가졌다.

이 회사의 새로운 CI인 VITZRO는 꿈의 빛, 침

단의 빛, 창의의 빛을 표현하고 있으며, 구 회사명인 광명기전에서 비츠로라는 회사로 새로 탄생했다.

이에따라 광명기전은 비츠로테크, 광명제어는 비츠로시스, 신설법인인 비츠로컴 등 3개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날 CI선포식에서 장순상 회장은 "비츠로기업은 임직원 모두가 단결된 창의력으로 새로운 브랜드 전략과 함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세계속에

우뚝서는 비츠로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츠로는 기업 CI개발을 위해 지난 '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기업문화진단 및 임직원의 의식조사와 전략적 시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내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상표검색을

실시했다.

또한 올 6월말까지 사명디자인 및 기업심볼, 로고작업을 거쳐 VITZRO라는 CI매뉴얼 작업을 최종 결정했다.

(주)진로산업, 난연폴리올레핀 케이블 전품목 KS획득

진로산업(대표 : 주상훈)은 최근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케이블 전품목에 대해 한국산업표준규격(K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가 이번에 획득한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케이블은 6.6kV HFCCO 등 6개 타입에 총 276종이다.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케이블은 화재시 유독가스 및 연기에 의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다 기존에 주로 PVC를 사용한 CV제품대신 할로젠이 없는 폴리올레핀으로 제품화한 것이다.

진로산업은 지난 '97년 NFR(Non Halogen Flame Retardant) 케이블을 개발한 이후 3년만에 난연, 저독 특성이 훨씬 뛰어난 저독성 난연가교 폴리올레핀으로 절연한 케이블까지 개발, 이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이 제품은 각종 건물, 공장, 지하철 및 플랜트 등의 밀폐된 공간에 포설되는 전력·제어회로에 사용된다. 또 국내 소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PVC계열 전선은 점차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케이블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대한전선(주), 광섬유 300만f/km 생산

대한전선(대표 : 유채준)은 광섬유사업 확대방침에 따라 올해 중으로 계열사인 대한제작소 군포공장에 500억원을 투자, 연간 200만f/km 규모의 생산설비를 설치한다.

이 회사는 이로써 기존 안양공장의 100만f/km에 달하는 생산능력을 포함, 올해 연말까지 연간 300만f/km 규모의 광섬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된

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측은 이와관련, 현재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대한제작소를 통해 광섬유사업의 설비투자자금을 마련키로 하고 오는 8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유무상증자를 각각 100%씩 실시할 방침이다.

대한전선은 최근 인터넷 등 정보통신(IT)산업의

급성장으로 광케이블 부족현상이 확대됨으로써 지난 6월 2일 대한제작소 이사회에서 사업목적에 기계설비 위주에서 광섬유생산 전문업체로 전환, 집중시키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이같은 유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제작소는 지난 '74년 설립되어 전선·철강 기계 등의 설비와 전선용 포장드럼을 제조·판매해오던 대한전선 계열사로 납입자본금 6억원, 자기자본금 100억원, 공장부지 1만평에 이르는 코스닥 등록업체다.

삼화기연(주), 디지털 보호계전기 신제품 출시

디지털보호계전기 선두업체인 삼화기연(사장 : 김인석)이 디지털보호계전기(EOCR)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삼화기연이 새로 선보인 신제품은 EOCR-FDM과 EOCR-3DM 두 종류이다. 모두 기존 제품의 성능을 보완 향상시킨 것으로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제품 모두 MCU(Micro Controll Unit)를 내장하고 있고 산업자원부 전력신기술로 지정된 ASIC를 적용하고 있다.

외부 CT를 사용, 하나의 모델로 0.1~800A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3상 전류 및 접지전류가 순환 표시된다.

동작원인도 문자와 숫자를 사용해 알기 쉽게 표시하고 동작시간 특성 설정도 선택해 할 수 있다.

이 제품들은 특히 다른 제품과 다른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일단 표시범위가 기존의 4 Digit에서 5 Digit로 확대됐고 최종 동작 원인의 확인이 가능하다.

Pulse Rotary Switch에 의한 설정 모델 및 설정치 조정의 편리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나의 스위치로 모델을 선택하고 설정할 수 있고 조작시 느껴지는 클릭 감촉으로 조작을 확인할 수 있다. 손쉽게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정확한 세팅도 가능하다.

이 제품들은 Total Funning Time 및 설정가능 누적 타이머 기능도 가지고 있고 설정전류에 대한 모터의 부하율도 표시해 준다.

삼화기연이 기존 제품의 기능을 보완해 선보인 이 제품은 성능면에서 탁월해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국전기공업(주), 기술개발자금 20억 수혜

발전기 전문생산업체 보국전기공업(주)(대표 : 박종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는다.

보국전기는 12일 국민은행이 전환사채 인수 방

식으로 2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민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지방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난 40여년간 발전기 한 분야에 매진해 높은 기술력과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보국전기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사 투자를 결정했다.

보국전기는 올해 기존 발전기사업외에 통합형중개기 제조등 정보통신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미 중남미 시장에 일부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보국전기는 올해 발전기부문 약 300억원과 정보통신 100억원등 총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

획이며 일본, 미국, 대만 등에 발전기 수출 물량을 확대해 금년에 5백만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국전기 박기영 부사장은 “그동안 은행들의 중소기업 투자는 정보통신 위주의 벤처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건설한 지방기업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국민은행의 투자는 기술력이 뛰어난 지방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양전기(주), 수출 주력 계획

계양진동드릴(DMV-10A)과 계양예초기(KBC-400SB)는 전동공구를 기반으로 D.C 모터와 엔진을 생산, 판매하는 계양전기(대표 : 이상익)의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단단한 벽이나 철판 등에 못을 박기전 계양진동드릴을 사용하면 수월하게 작업 할 수 있다.

콘크리트, 나무, 철판 등에 구멍을 뚫어 못을 쉽게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좌·우 회전 조작 겸용으로 드라이버 작업이 가능하다. 가벼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인체 공학적 구조와 우수한 디자인으로 집에 상비해 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계양예초기는 내구성과 성능이 우수한 엔진장착으로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의 벌초가 가능하

다. 작업시 어깨가 편안한 배낭식이며 등받이에 열방지용 패드가 장착돼 있다. 휴대가 간편하고 조립·조작이 쉬운 2단 분리식 작업봉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 기구 공학적 설계의 안전체인날이 장착돼 있어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한 것도 계양예초기 만의 특징이다.

국내 전동공구 시장의 일인자인 계양전기는 이제 ‘세계 초일류 공기구 전문기업’이라는 목표아래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전동공구 및 엔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신사업의 확대, 구매·물류·생산·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보해 수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